

그레마스의 구조의미론의 세계 각주

1) 주근옥, “5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주요 시인의 시적 특성,” 「개신어문연구」 제30집(2009. 12. 30)의 'semiotics'의 도표 참조.

2) thymic category(방향적 범주): 덧차원의 반물질(反物質, antimatter)과 비교해 보라. 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그 에너지는 $E=mc^2$ 이다.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 이 정지에너지에 운동에너지가 더해져야 하므로 에너지는 항상 mc^2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디랙(Paul Adrian Maurice Dirac, 1902 ~ 1984) 방정식 " $(i\gamma^\mu \partial_\mu - m)\psi=0$ "을 풀 결과와 비교해 보면($E \geq mc^2$ 또는 $E \leq -mc^2$), 첫 번째 관계식은 상대성이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관계식인 $E \leq -mc^2$ 이다. 이에 의하면 전자의 에너지가 음수인 것도 가능해야 한다. 에너지가 음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냥 음수도 아니고 정지에너지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보다 작아야만 한다니 무언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E = mc^2$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대성이론과 일치
$E = 0$	_____	
$E \leq -mc^2$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예상하지 못했던 음의 에너지
	디랙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보통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디랙은 자신의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결코 틀릴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음의 에너지에는 우리 우주의 깊은 비밀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디랙은 과연 이 음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거기에서 발견한 우주의 비밀은 무

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반물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준비 작업으로 파울리의 배타원리(Pauli's principle; 1924년 W. 파울리에 의해 발견된 법칙으로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계에서 2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상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배타율이라고도 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원자의 전자껍질구조 개념이 확립되었다. 남녀와 같은 초대칭을 상상하라)를 떠올려보자. 이에 의하면 전자는 한 상태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 쉽게 말을 바꾸면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전자가 모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사람 여러 명이 몸을 겹쳐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만약 이게 가능하면 사람으로 꽉꽉 들어찬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달릴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자에서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디랙이 알아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전 지식이 더 필요하다. 요점만 말한다면 전자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의 순식간에 그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버린다는 것이다. (무슨 얘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대강 설명하면 공중 높은 곳에 떠 있는 공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의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내 보낸다. 이것이 바로 불이 났을 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는 원리이기도 하다. (가능하다면 재앙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상태의 역현상, 즉 방출이 아니라 반물질이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물질의 진동처럼 물질과 반물질 간의 진동도 가능할까? 적어도 언어의 세계에서만은 그것이 가능한 것 같다. -김찬주, “반물질이 존재한다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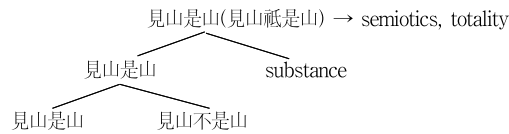
- 3) 주근옥, “시의 모더니티에 관한 일고,” 「호서문학」 통권 제33호(2004)와 “Ⅲ. 시의 모더니티에 대한 에포케와 탐색,”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서울: 시문학사, 2001), pp. 137 ~ 234. 참조.
- 4) C. W. Hallett, 「미니멀리즘과 단편소설(Minimalism and Short Story-Raymond Carver, Amy Hempel, and Mary Robison)」(New York: The Edwin Press, 1999), p. 24. “만약 산문의 작가가 그 자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생략할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 그리고 독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만약 작가가 진실로 충분히 알고 있다면, 작가가 충분히 진술했던 것만큼 강하게 이러한 것의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빙산 운동의 장엄함은 물 위에 존재하는 것의 1/8이 아니라 물 아래의 8에 기인한다.”의 헤밍웨이의 언급을 인용한 것 참조.
- 5) 鄭衆은 字가 仲師이며, 東漢時代에 河南開封人으로 경학가인 鄭興의 아들이다. 章帝때에 그는 大司農[財政業務를 管轄]이란 관직을 지냈기 때문에, 경학가들은 모두 그를 鄭司農이라고 칭했다. 東漢末年에 이르자 鄭玄이라는 경학가가 출현하자 후인들은 이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鄭衆을 先鄭, 鄭玄을 後鄭이라고 불렀다. 그는 《易》 《詩》 《三統曆》을 망라해서 《春秋難記條例》라는 저작을 남겼는데 이는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 책이었다. 그의 생평에 대해서는 《後漢書·鄭衆傳》을 참고.
- 6) 南晚星 譯, 「老子道德經」(서울: 乙酉文化社, 1974), pp. 31 ~ 32. “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縣縣若存 用之不勤(곡신은 죽지 않는다. 이것을 玄牝이라고 한다. 玄牝의 門은 이것을 천지의 근본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길게 이어져 있

어서 써도 勞苦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통시적 연속인 것이 아니라, 비통시적 불연속의 총체성으로서, 결코 고갈되지 않는 "non zero-sum game" 같은 결합세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莊子の 第七篇 「應帝王」, 南海之帝爲儻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渾沌 與忽 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與忽謀報渾沌之德 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之鑿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남해의 임금을 숙이라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 하였다. 어느 때 숙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나 혼돈에게서 응송한 대접을 받았다. 숙과 홀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고자 했다. “사람에게는 일곱 구멍이 있다. 이로써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 것이다. 혼돈만이 이런 구멍이 없으니 시험 삼아 뚫어 봅시다.”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 갔고 마지막 칠일 째에 일곱 구멍이 완성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즉, 숙과 홀의 판단은 지각의 일차원적 세계이고, 혼돈은 자연의 총체성 그 자체의 다원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8) 고흥곤, 「선의 세계」 (서울: 태학사, 1971), p. 16. 길주 靑原惟信禪師의 상당설법에 “노승 삼십년 전 참선하기 이전에는 산은 청산이요 물은 녹수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 뒤 여진 스님을 만나 깨침에 들어서고 보니, 산이 산이 아니요 물도 물이 아니더니 마침내 진실로 깨치고 보니 이제는 산이 의연코 그 산이요 물도 의연코 그 물이더라. 그대들이여, 이 세 가지 견해가 서로 같은 것이냐, 서로 다른 것이냐? 만일 이것을 터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노승과 같은 경지에 있음을 내 허용하리라.” 참조. 다시 말해서, 靑原惟信禪師의 설법을 통해 살펴보면 동일한 산과 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식하는 바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나타난다. 첫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見山是山 見

水是水). 둘째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셋째 산이 역시 그 산이요 물도 역시 그 물이다 (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 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대상의식, 즉 지각차원의 분별의식 속에서 본 산과 물이라면, 두 번째는 斷滅 또는 은유나 상징과 같은 정신분열적 파악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며, 세 번째의 것은 똑같은 산과 물이라도 空性을 깨닫고 난 후 대상의식에 의한 주객대립이 사라지고 現前하는 일체를 어떠한 戲論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긍정적인 것이 된다.



9) 주근옥, 「시물레이션」(한맥문학 통권 제351호, 2019. 11. 25): "기생충-이 영화를 계급투쟁의 단순구조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제2레벨의 단순 객관적 길항구조라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제1극화. 이 영화는 제3레벨을 거쳐 제4레벨의 특별 함수(function; 클라인 병, 피비우스의 띠와 같은)로 구성된, 다시 말해서 관객이 주관적으로 의미를 구성해나가는 그래서 최상위 인식론적 차원의 총체성의 복합동류체(complex isotopy: 귀납법과 연역법의 결합, 그러면 서도 단순한 사실로만 보이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극화. 관자놀이 시공간과 육경(六境-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념)이 관객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솨음쳐 아티큘레이션→프레이즈→피리어드로 분할하다가 결국 이원성의 행복감(euphoria)-불쾌감(dysphoria)으로 소용돌이친다(질의↔응답). 이울배반의 세계. 그러나 표층은 일원성이다. 변화가 없다. -한국 관객 중에

기립박수를 칠 만큼 감동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참조“